



“성공 고민 말고 일단 저질러 보자”

1970년대 유원지로 조성된 강원도 춘천 남이섬은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솔병이 나뭇가지는 황량한 곳이었다. 관리가 안된 시설들은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불거리·졸갈거리도 마땅치 않아 관람객들이 외면했다.

나무만 무성하던 이곳이 새롭게 태어난 건 강우현(63) 탐나라 공화국 대표가 취임하면서 부터다.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재창업 선포를 한 강 대표는 재활용센터, 유니세프홀, 문화학교, 갤러리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길을 붙잡았다.

남구 관광문화사업 자문 광주 찾은 강우현 탐나라공화국 대표

특히 지난 2002년 방영된 KBS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입소문이 퍼지며 매년 국내외에서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변신했다.

지난 9일 광주시 남구청에서 만난 강 대표는 “무조건 저지르고 봐야한다”며 “기상천외한 것을 하나 만들고 나서 ‘이런게 어땠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일단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제2의 남이섬’ 탐나라공화국 조성에 한창 바쁜 강 대표는 이날 최영호 남구청장 초청으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양과동 농촌테마파크 예정지 등을 둘러본 후 조성 방향 등에 대한 자문했다. 10일에는 윤장현 시장과 면담한 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최영호 청장은 “그동안 광주에서 관광문화사업을 진행할 때는 타지역 답습에 그쳐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양림동 등 본격적인 역사관광문화사업 진행을 앞두고 상상력이 뛰어난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강의를 청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양림동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대로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이 성공할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여행사 입장에서 말을 하면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 전세계인을 끌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근대역사문화마을은 대구시 중구가 더 유명하고 선교사 사택 등도 전국 어디에나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인이 봤을 때 양림동이든 대구든 큰 차이점은 못 느낀다는 말이다.

강 대표는 “방문객들이 단순히 보고

남이섬 성공 이끈 주역 제2 ‘제2 남이섬’ 조성중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이야기거리 찾아 양림동만의 특색 갖춰야”

“관광으로 먹고 살아가 그곳이 진짜 관광지”

듣는 관광이 아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양림동만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예를 들자면 무인카페(다형다방)에서 돈이 가끔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버리면 낸 사람도, 가져간 사람도 양림동이 더 기억에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골목 곳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미적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건물들을 가려주고, 어수선한 전깃줄도 제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최 청장에게 대구와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영호남 대표 양 지역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남구’ 명칭에 관해서도 ‘재미없다’는 의견이다. 인천시 서구가 지난 2011년 ‘정서진(正西津) 개념을 끌어들이 관광을 활성화시킨 것처럼 남구도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명칭을 짓

붙여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수습을 더 잘한다”며 “일단 모험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가서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이날 공무원, 문화기획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특강 주제는 ‘내 맘대로 하라’며, 네 맘에도 든다’였다. 다소 말장난 같아 보이는 주제지만 강 대표는 각종 사례를 통해 생각을 깨우쳤다.

그는 관광지에 대해 “사진 찍을 곳 많으면 관광지, 재방문객 많으면 좋은 관광지, 관광으로 먹고 살아가 관광지”라고 정의했다.

남이섬 곳곳에는 소주병을 변형시켜 천장 장식을 만들거나 타일 벽화, 공예품으로 재활용한 경우가 많다. 강대표는 “스레기는 쓸이기로 바꾸면 된다”며 “40원짜리 빈병으로 꽃병을 만들어 팔면 4000원,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6000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 중인 제주 탐나라공화국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보니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며 “무조건 땅을 파다. 땅을 파다보니 큰 돌들이 나왔고 계속 파다보니 기암괴석 절벽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다”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남이섬 ‘나미나라공화국’, 제주도 ‘탐나라공화국’, 경기도 수원에 개국할 예정인 ‘생생공화국’을 묶어 상상나라 삼국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끝으로 “광주와 남구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상상은 살 길, 창조는 갈 길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토요그림경매 500회...3319점 팔았다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 내일 윤림산방서 특별경매

남중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머뭇머 그림을 그리던 진도 윤림산방은 허건 등 자손들이 남중화의 맥을 이어가는 공간이었다. 잘 가꿔진 나무와 정원, 대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진 윤림산방에 가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이 진행하는 ‘토요그림경매’다.

지난 2006년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남도예술은행은 지금까지 지역 작가 586명의 작품 3433점을 구입했고, 3319점을 판매했다. 특히 토요그림경매 출품작은 경매 낙찰률이 71%를 넘는 등 미술애호가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남도예술은행은 그림경매 판매수익금을 다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자립형 사업으로 정부미술은행(문화체육관광부), 인천미술은행(인천문화재단)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토요그림경매가 어느덧 500회를 맞았다. 재단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진도 윤림산방 토요그림경매장에서 500회 기념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봄향기 나는 남도예술 여행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 경매에서는 봄을 맞은 남도의 풍광을 담은 작품 30점을 최저 8%에서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500회 특별 이벤트로 오는 4월2일까지 ‘아트 컨설팅’도 진행한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미술작품 감상법, 구매작품 선정요령, 디스플레이 등 활용방법과 구입요령에 대해 안내한다. 또 남도예술은행 선정작가 등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보도자료 작성법 등 작품 홍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작품을 구매



하는 고객에게는 남도예술은행 기념품도 증정한다. 이 밖에 남도예술은행 활성화를 위해 ‘남도예술 여행전’을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관에서 남도의 봄과 자연을 담은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한편 재단은 오는 8월 개관 예정인 광주·전남 서울 갤러리(가칭)를 통해 남도예술은행 선정작가들의 판로개척 및 중앙 무대 진출을 도울 계획이며 기관·건물·아파트·병원 등을 대상으로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문의 061-280-58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흥겨워라 전통국악 앙상블

전통문화관 내일 ‘놀이판’ 공연



무등산 자락에서 봄내음 물씬 풍기는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토요상설공연 ‘흥겨워라’ 무대로 전통국악앙상블 ‘놀이판’(대표 김승호)의 ‘봄맞이 가세’를 선보인다.

‘금강산타령’과 ‘신 뱃노래’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옛 모리를 주제로 한 ‘흥’을 악기들의 특색을 살려 연주한다. 판소리를 새롭게 편곡한 작품도 들려준다. ‘춘향가’ 중 ‘사랑가’와 ‘쑥대머리’를 신디사이저와 대금 연주가 돋보이도록 재해석했으며 흥보가 중 ‘박대령’은 왈츠 풍으로 편곡해 선사한다. ‘뱃노래’는 드럼과 장구의 즉흥 연주배틀이 돋보이는 편곡으로 재구성했다.

‘놀이판’은 음을 가지고 신명나게 노는 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창단했다. 이번 공연은 대금 김승호 대표를 비롯, 소리 임재현, 전지혜, 피리 김원근, 가야금 공탄나, 아쟁 김민지, 장구 정인성, 팽과리 신지수, 신디 심지, 드럼 황성훈 단원이 출연한다. 무료 공연.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프라노 백정민 테마음악회 14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소프라노 백정민(사진)의 테마음악회 ‘사순 음악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참회와 회개, 회개와 기도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맞아 마련한 음악회다. 레퍼토리는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스티바트 마테르(심자가 아래의 어머니)’다.

대구가톨릭대,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리치니오 레피치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한 백씨는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까펠라 솔리이 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평화방송 ‘피아노 도미니’ 소년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메조소프라노 전진씨와 천현주, 바로크 솔리스트(박신영·김수연·정수지·이후성)이 함께한다. 문의 062-380-2210. /김미은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충장점 금남로 4가 공영앞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